

20~30대 10명 중 8명 '국민연금 불신'

여성정책연 지난해 설문...“더 내고 못 받을라”

최소 희망 월 노후소득, 男 266만원·女 241만원

2030대 10명 중 8명 가까이는 국민연금을 불신한다는 국회연구기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금 고갈로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인구 감소로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 우려도 컸다.

1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미래사회 성평등 정책의 도전과제(II): 초고령·4차 혁명 사회의 여성 노후소득 보장' 보고서에 따르면 '2030의 노후소득보장 인식과 지원수요' 설문조사가 실행됐다.

지난해 7~8월 만 20~39세 남성 600명과 여성 552명 등 총 11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받은 결과 응답자의 75.6%는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한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 만 35~39세 79.7%를 비롯해 만 30~34세(77.9%), 만 25~29세(75.8%), 만 20~24세(67.8%) 등 나이가 들수록 제도를 믿지 않는다는 이가 많아졌다.

30대 여성의 경우 불신한다는 답변이 80.2%에 달했다. 제도에 대한 우려 5가지에 대해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인구감소(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내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계속 인상될 것 같아서'가 89.3%로 1위였다.

이어 '노후에 받게 될 금액이 너무 적을 것 같다'는 데 동의한 응답자가 86.3%였으며, '기금 고갈로 인해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까 우려한다'가 82.6%였다.

전체 응답자 73.3%는 '국민연금

개혁에 청년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62.4%가 동의했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월 수입에 대해 묻자 평균 254만 7000원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평균 266만 5000원, 여성은 241만 8000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연금 이외 별도의 노후 소득 준비 여부를 묻자, 과반수 응답자인 56.8%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별도의 노후 소득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답한 664명에게 다시 그 이유를 물었는데 '아직 생각해볼 여유'가 43.0%로 조사돼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소득이 적어서'(25.2%), '과도한 주거비 지출 때문'(9.4%), '고용상태가 불안정'(7.4%) 등이 뒤이었다.

특히 20·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아직 생각해볼 여유'를 1순위로 꼽은 것과는 달리, 30대 여성만

'소득이 적어서'를 1순위로 택했다.

노후소득을 준비 중이라고 한 498명에게 복수응답을 허용하고 방식을 묻자 62.7%는 '예금·적금'을 꼽았고 '개인연금 가입'(56.4%), '주식·채권·펀드·가상화폐 투자'(52.2%), '퇴직연금을 받을 것'(36.9%) 등 순이었다.

남성은 주식·채권·펀드·가상화폐 투자가 63.3%로 상대적으로 많았고 여성은 예금·적금이 68.3%로 1위였다.

개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도에 대해선 가장 많은 응답자 41.6%가 '모든 노인에게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보험료와 급여액 조정 방향은 '보험료는 덜 내고 급여액은 더 많이 받는다'가 31.4%로 가장 많았지만, 그 다음은 '더 내고 더 받는다'(26.6%)가 선택됐다.

/뉴스스

전략품목 공동선별출하 생산자조직 육성

전남도, 마케팅·상품화 등 조직당 최대 2천만원 지원

전남도는 전략품목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안정적 다량 확보와 취급량 확대를 위해 공동선별출하 생산자조직 육성사업을 도입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4억 원이다.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상품화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 조직은 시군 조공법인, 지역농협에 속한 26개 공선출하회다. 자격 요건은 전년 출하금액이 5억 원

이상 규모이고 10인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

지원 사업비는 생산·재배 기술전문가 초빙 교육, 선진지 견학, 상품화 마케팅, 공동선별비, 물류비, 포장재비로 활용될 수 있다.

국비 공동선별비 지원사업과 별개로 물류비와 상품 포장재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소규모 전략 품목을 취급하는 영세한 지역농협과 공선출하 조직의 육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김호기자

'에스오에스랩'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통과

광주시 창업펀드 투자...글로벌 4대 라이더 기업

광주시가 출자한 펀드로 투자받은 지역의 기업 '에스오에스랩'이 코스닥에 상장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광주과학기술지주와 전남대학교기술지주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광주시 창업펀드를 투자받은 라이더 전문기업 에스오에스랩에 대한 상장 예비심사를 승인했다.

에스오에스랩은 증권신고서 제출 수요일, 투자설명회(IR), 청약일정을 거친 뒤 최종 코스닥에 상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광주과학기술원(GIST) 박사과정 4명이 창업한 에스오에스랩은 자율주행 차량용 라이더를 연구·개발, 생산하는 회사다.

글로벌 4대 라이더 기업으로 꼽히고 있으며 고정형 3D 라이더의 한계로 지적됐던 거리와 화각 문제

를 해결해 2021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또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에스오에스랩이 개발한 고정형 라이더는 진동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내구성이 강하며 최대 측정거리 2.2배 향상, 해상도가 3배 높은 것이 특징이다.

에스오에스랩은 창업 후 8년 동안 현대차, 포스코, 세메스(SEMES) 등 국내의 다양한 기업들과 기술개발을 진행했으며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모빌리티'와 '인프라' 분야에 라이더를 공급하고 있으며, 공장 자동화, 산업 안전(Manufacturing)과 스마트 인프라(Smart Infrastructure)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권형안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 자회사 운영실태 '3년 연속 최고등급'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3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자회사를 운영하는 9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자회사의 '안정적·독립적·전문적' 운영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했다.

YGPA는 2017년에 운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자회사인 여수광양항만관리(주)를 설립했으며, 여수광양항만관리(주)는 시설관리·경비보안 등 여수광양항의 안전 및 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YGPA는 2021년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부터 최근 2023년 평가까지 3년 연속 최고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으며, 이는 여수광양항만관리(주)의 지속발전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YGPA는 단일통합계약 체결, 상생협력협의회 운영, 공정한모·자회사 계약관계 조성 노력 등을 인정받아 ▲자회사의 안정성·지속성 기반 마련,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획득했다.

/광양=조준익 기자



광주시 '농축산물 금요직거래장터' 개장...최대 30% 저렴
광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직거래장터가 문을 열었다. 광주시는 농협 광주지역본부 주차장에 '2024년 농축산물 금요직거래장터'를 개장하고 11월까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지역 15개 농·축협이 참여해 지역의 농산물을 10~3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

/광주시 제공

완도 황칠약주, 대한민국 주류 '전통부문 대상' 수상

지역 특산품 황칠나무 활용한 고급 약주

완도군은 11일 고급주조장에서 만든 '장보고의 꿈, 황칠 약주'가 2024 대한민국 주류 대상 우리 술 약주, 청주 전통 주류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주류 대상은 지난 2014년부터 조선비즈가 개최하는 주류 품평회로, 전문 주류 시음단의 심사

를 통해 주종별 최고 술을 선정한다.

올해는 218개 업체 총 1061개 브랜드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장보고의 꿈, 황칠 약주'는 국내산 유기농 통밀을 뿔아 순수 만든 누룩과 완도 짚을 세 번 발효시킨 삼양주다. 완도 특산품인 황칠나무의 안식향과 자가 누룩의 향이 어우러진 고급 약주로 유명하다.

고급주조장은 2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지역 향토기업으로 '장보고의 꿈 황칠 약주' 외에 '장보고의 꿈 비파', '유자 막걸리' 등 다양한 술을 생산 중이다.

/완도=이두식 기자

여수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22일 분양 시작

2개 블록 1272가구...분양가 상한 적용

22일 특공...23일 1순위·24일 2순위 순



현대건설이 여수에 짓는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투시도. /현대건설 제공

현대건설이 여수에 짓는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가 12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으로 분양에 나선다.

여수 소라면 죽림리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전남개발공사와 현대건설이 함께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

으로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 규모는 A2블록 931가구, A4블록 341가구 등 총 1272가구다. 전용면적에 따라 A2블록은 ▲74㎡ 42가구 ▲84㎡ 760가구 ▲106㎡ 129

가구, A4블록은 ▲74㎡ 42가구 ▲84㎡ 299가구로 이뤄져 있다.

청약 일정은 오는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A4블록 공공 5월 2일 ▲A2블록 공공 5월 3일 ▲A2블록 민영 5월 7일이이며 입주는 2027년으로 예정돼 있다.

특별공급은 신생아 특별공급을 비롯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기본 요건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특별공급 전 유형 소득기준이 완화되는 등 변경된 제도가 반영된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여주시 및 전남·광주 거주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시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공공분양은 특별공급 비중이 높아 신혼부부인 젊은 수요층과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 신설된 신생아 특별공급 기준에 해당되는 수요자들에게 유리하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

성원으로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 납입 횟수 6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된다.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로 빠르게 조성된다. 정유, 석유화학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중화학 공업단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가 가까워 출퇴근이 편리한 편이다.

도보권에 유치원,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있으며 여수삼일중 등도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내년에는 '여수꿈바다어린이도서관'도 들어선다.

순천완주고속도로와 연결된 국지도 22번, 여수 시내 진입이 용이한 도원로 등이 가깝고 반경 3km 내에 KTX 여천역, 여천시외버스터미장이 위치했다.

전 세대 남향형 위주 배치, 전용면적 74㎡A, B타입은 현관 팬트리, 안방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 전용면적 84㎡의 경우 일부 타입을 제외하면 알파룸, 현관 팬트리, 드레스룸 등을 갖췄다.

/권형안 기자

(주)메사코사, 화장품 이탈리아 수출계약

유기농 매화수 스킨케어 3종 5만불 수출계약 체결



광양시는 봉강면 소재 (주)메사코사가 이탈리아 화장품 판매 업체 'HALLYU KBS'와 유기농 매화수 화장품 3종 5만불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살메오'는 홀리스틱 뷰티스킨케어 화장품 전문 브랜드이다. 특히, 광양에서 재배된 유기농 매화에서 추출한 원료를 사용해 코스모스 유기농 인증, 비건 인증, 클린뷰티 인증, 유럽화장품 인증, 영국화장품 인증, 유아시아 인증까지 받은 100% 천연화장품으로, 이번 계약을 통해 매화수토너, 매화수세럼, 매화수크림 3종이 수출된다.

/광양=조준익 기자

순천농협 '공공형 베트남 계절근로자' 30명 입국



순천농협은 지난 12일 순천농협 농촌인력증개센터에서 베트남 국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명의 입국 환영식을 개최했다.

입국설명회, 원활한 소통을 위한

번역 어플 사용법, 근로조건, 인권 농촌인력증개센터에서 베트남 국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명의 입국 환영식을 개최했다.

/순천=조준익 기자